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는 COVID-19 이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언론인들께서 각 별히 건강에 유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식을 가진 것이 6개월 전인 3월 16일 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였지요. 한두 주면 끝나려니 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취임식 직후에 여러 언론인들을 모시고 학교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늘 우리학교를 도와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가 늦은 것을 해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거의 모든 한국의 대학들과는 반대로, 장학금을 주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금강대학교입니다.

그러던 것이 교육부의 획일적 잣대에 의한 평가로 인해 그만 일종의 감기를 앓아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왔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감점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관계로 휴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고교 성적에 구애되지 않고 잠재력이 있는 모든 학생을 선발하되, 그 잠재력과 개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교 성정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는 학교인 것으로 오해하는 학부모들이 계시는가하며, 하향평준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향평준화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소수정예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은 110명이라는 소수의 학생만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기숙형 리버럴아츠 대학인 금강대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조언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